

ADHD 증상이 아동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양육방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이 동 훈 양 모 현[†] 양 순 정 양 하 나 강 은 진
성균관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의 ADHD 증상이 아동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부모의 양육방식이 조절하는지 알아보는데 있다. 평정자 간의 지각의 차이를 고려하여 아동의 ADHD 증상은 아동 본인과 부모의 보고를 모두 사용하였고, 또래관계는 아동이 보고한 교우관계문제와 부모가 보고한 아동의 사회기술로 측정하였다. 초등학교 5, 6학년 286명의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 연구를 수행한 결과, 양육방식 중 민주적 양육방식만 ADHD 증상이 아동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이 보고한 ADHD 증상과 교우관계문제의 관계에서 민주적 양육방식이 조절효과를 보였다. ADHD 증상이 높을 때에는 민주적 양육방식을 사용할수록 교우관계문제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보고한 ADHD 증상과 사회기술의 관계에서 민주적 양육방식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ADHD 증상이 낮을 때에는 민주적 양육방식을 사용할수록 사회기술이 높아졌지만, ADHD 증상이 높을 때에는 민주적 양육방식의 긍정적인 영향이 줄어들거나 사라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허용적 양육방식과 독재적 양육방식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 결과에 기초해서 본 연구의 의의, 제한점 및 향후 연구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였다.

주요어 : 아동-보고 ADHD 증상, 부모-보고 ADHD 증상, 양육방식, 교우관계문제, 사회기술

[†] 교신저자 : 양모현,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외상심리건강연구소 연구원, (110-743)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명륜3가) 호암관 204호

Tel : 02-740-1984, E-mail : mohyuni@hanmail.net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장애(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이하 ADHD)는 10대 정신건강 장애 중 가장 일반적인 장애로 주의산만, 부주의, 과잉행동, 충동성과 같은 특성을 가진 질환이다(Barkley, 1990; Cantwell, 1996).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 이하 DSM) 제 5판에서는 ADHD를 크게 주의력-결핍 우세형(predominantly inattentive type), 과잉행동·충동 우세형(predominantly hyperactive-impulsive type), 복합형(combined type)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APA, 2013).

아동의 ADHD 증상이 아동이 경험하는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여러 선행연구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래와 관계를 맺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기술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이와 함께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관계를 유지하는데 방해가 될 정도의 행동 문제가 두드러지지 않아야 할 것이다. ADHD 증상을 지닌 아동들이 사회기술이 부족하고, ADHD 특유의 부주의하고 충동적인 행동 문제로 인해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선행연구들이 있다. 사회기술의 저하와 관련한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ADHD 아동들은 일반아동에 비해 또래관계를 형성하는데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주의산만하며, 충동적인 아동일수록 사회기술 능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asey & Scholsser, 1994; Shea & Wiener, 2003). 또래와의 관계를 저해하는 ADHD 아동의 부정적 행동 특성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ADHD 아동은 일차적 증상인 주의력 부족 및 과잉행동으로 인해 또래아동을 쉽게 방해하고, 감정조절능력이 부족하여 분노를 자주 표현할 뿐만 아니라 자기중

심으로 의견을 내세워 또래아이들과 논쟁을 하는 등 다양한 행동문제로 긍정적인 교우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보고되어 왔다(온싱글, 김은정, 2003; Guevremont, 1990; Landau & Moore, 1991). 이로 인해 ADHD 아동들은 친구를 사귀거나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성공경험이 부족하여(Cardoos & Hinshaw, 2011), 또래로부터 거부당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ADHD 증상이 아동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ADHD 증상의 하위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선행연구들이 있다. 과잉행동·충동 우세형인 아동들은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 잦은 분노표현과 공격적인 행동 등으로 또래관계 형성에서 어려움을 경험함으로써 또래관계에서 공격적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Erhardt & Hinshaw, 1994; Lahey & Carlson, 1992) 반면, 주의력 결핍 우세형인 아동들은 공격성보다는 의기소침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적절한 반응을 인지하지 못해 상황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반응을 보이면서 또래로부터 비난과 놀림을 받을 수 있다(강위영, 공마리아, 1998; 이동훈, 김명선, 송연주, 권보민, 2013; Hodgens, Cole, & Boldizar, 2000; Wheeler & Carlson, 1994). 이에 따라 Wheeler와 Carlson(1994)은 ADHD 아동의 또래관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ADHD 증상의 하위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한편 아동의 또래관계 형성 및 사회기술능력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다룬 연구들은 부모의 양육행동을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부적절한 양육행동 및 부모-자녀 관계가 자녀의 내재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를 야기하고 지속하

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제시하였다(이은주, 2010; Albrecht, Galambos, & Jansson, 2007). 또한, 부모가 자녀에 대한 감독 기능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거나 부모와의 애착 관계에 문제가 있을 경우 아동은 높은 수준의 내재화 및 의현화 행동문제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백혜정, 황혜정, 2006).

ADHD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아동의 ADHD 증상은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및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증가시키고(Baker & Kevin, 1995; Gupta, 2007; Johnston & Mash, 2001),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은 ADHD 아동의 사회기술능력 및 또래관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Jack, Mikami, & Dalhoun, 2010; Mikami, Jack, Emeh, & Stephens, 2010). 아동의 ADHD 증상과 부모의 양육행동, 아동의 사회기술 간의 관련성을 알아본 Kaiser, McBurnett와 Pfiffner(2011)의 연구에서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은 ADHD 증상과 사회기술 간의 관계를 매개하였는데, 아동의 ADHD 증상이 심각할수록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아동의 사회기술이 감소되었다.

한편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방식이 ADHD 아동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연구의 결과는 일관되지 않다. Mikami 등(2010)의 실험 연구에서 부모가 ADHD 자녀의 부족한 사회기술에 대해 긍정적인 격려를 해주었을 때 아동의 또래 수용이 높아졌던 반면, Jack 등(2010)의 연구에서 ADHD 아동의 행동에 대한 부모의 칭찬은 또래로부터의 부정적인 지명을 더 많이 받게 만들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일반적으로 자녀의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간주되는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ADHD 아동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Baumrind(1971)는 부모가 자녀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요구수준과 자녀에게 반응하는 반응수준에 따라서 독재적 양육방식, 민주적 양육방식, 허용적 양육방식으로 분류하였다(Baumrind, 1991; Ishak, Low, & Lau, 2012; Martinez & Garcia, 2008). 부모의 요구수준은 부모가 자녀에게 권력을 행사하고, 자녀를 감독하면서 통제하려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반응수준은 부모가 자녀에게 정서적인 온정과 지지수준을 나타내는 것이다(Baumrind, 1991; Martinez & Garcia, 2008). 높은 요구수준과 낮은 반응수준을 나타내는 독재적 양육방식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자녀들의 요구에는 적절하게 반응하지 않고, 자녀가 순응하길 원한다. 그리고 낮은 요구수준과 높은 반응수준을 나타내는 민주적 양육방식은 부모가 자녀를 구속하지 않는 선에서 일관성 있고, 적절한 수준의 요구를 하면서 지지적이고 온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방식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낮은 수준의 요구와 낮은 수준의 반응을 나타내는 허용적 양육방식은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구속하지 않고,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않지만 다소 방임적인 태도를 나타낸다. Merlin, Okerson과 Hess(2013)의 연구에서는 독재적 양육방식을 통제적(controlling) 양육방식으로 명명했고, 민주적 양육방식은 인도하는(guiding) 양육방식이라 명명하기도 한다.

Baumrind(1971, 1989, 1991)를 포함한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민주적 양육방식이 일반적인 아동과 청소년의 기능적인 능력을 발전시키고, 심리적 안정, 사회기술 능력, 책임감, 독립심 및 학업성취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Hurt, Hoza와 Pelham(2007)은

ADHD 자녀를 둔 부모의 온정적인 태도가 또래집단에서의 수용을 증가시키고, 부모의 통제수준이 높을수록 ADHD 아동의 공격성을 높여 또래거부를 경험할 가능성이 증가된다는 결과를 보고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긍정적 양육방식으로 볼 수 있는 민주적 양육방식은 또래관계를 개선하는 역할을 하면서 ADHD 증상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을 완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다만 일부 선행연구(Jack et al., 2010)의 결과에서 부모의 칭찬과 같은 긍정적 태도가 ADHD 아동의 또래관계에 반드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했을 때 긍정적 양육방식이 ADHD 아동의 또래관계에 보완적 역할을 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부정적 양육방식으로 볼 수 있는 독재적 및 허용적 양육방식은 또래관계에 대한 ADHD 증상의 영향력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한편,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각된 양육방식과 ADHD 증상이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Jones, Rabinovitch와 Hubbard(2015)의 연구에서는 ADHD 증상이 낮을 때에는 Baumrind(1971)가 제안한 세 가지 양육방식 중 높은 민주적 양육방식과 낮은 독재적 양육방식이 높은 학업 적응을 예측하였지만 ADHD 증상이 높아질수록 낮은 민주적 양육방식과 높은 독재적 양육방식으로 양육된 대학생들에 비해 큰 폭으로 학업적응 능력이 감소하였다. 이는 흔히 긍정적이라고 간주되는 민주적 양육방식이 학업방식에 미치는 ADHD 증상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보완하지 못함을 시사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긍정적인 양육행동이 ADHD 아동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엇갈리는 선행연구 결과(Jack et al., 2010; Mikami et al., 2010)를 함께 고려하였을 때, 지각된 부모의 양육방식이 아동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ADHD 증상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보완하거나 악화시키는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18세 이후의 성인들은 아동들보다 자기인식이 발달하여 신뢰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자기보고형식만으로 진단을 할 수 있지만, 성인과 비교하여 인지적으로 덜 발달한 아동은 다양한 상황에서 경험하는 자신의 기분이나 행동을 명확하게 인식하거나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홍상황, 황순택, 2004; Achenbach, McConaughy, & Howell, 1987). 그렇기 때문에 아동의 문제행동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아동의 행동을 관찰한 부모 또는 교사 등 중요한 타인의 보고가 중요하여 그동안 다양한 연구에서 평가자의 다각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기되었다(강현경, 조형숙, 2008; 김경숙, 1993; 이동훈, 2011; 황혜정, 2006). 아동에 관한 평가에 있어 부모와 교사는 가장 신뢰로운 평가원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특히 부모의 경우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아동을 관찰할 수 있고 오랜 시간 아동과 함께 지내왔기 때문에 아동에 관해 많은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Novick, Rosenfeld, Bloch, & Dawson, 1996).

한편 초등학교 고학년은 사춘기가 시작되는 시기로 이 시기에는 자기인식이 발달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고학년들의 자기보고 또한 나름대로 의미를 지닌다. 아동의 증상에 대한 부모의 보고와 아동의 보고 간에는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데, 실제로 아동-보고와 부모-보고 증상의 일치도를 알아본 선행연구들에서는 아동의 증상과 진단에 대해 아동과 부

모간의 평정자간 일치도가 낮게 나타났다(Bird, Gould, & Staghezza, 1992; Jensen et al., 1999).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아동과 부모 모두 각각 독특하며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아동-보고와 부모-보고를 모두 고려하는 것은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현상의 본질을 다양한 시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기존의 ADHD 아동 관련 연구들에서는 주로 ADHD 증상에 대한 부모 및 교사의 보고만을 사용하며(김세연, 2012; 탁희중 외, 2011), 아동의 보고를 함께 고려하는 연구는 드물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아동-보고와 부모-보고된 ADHD 증상을 구별하여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ADHD 증상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ADHD 증상이 사회기술 및 교우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방식의 조절효과는 어떠한가?

둘째, ADHD 증상에 대한 아동-보고와 부모-보고를 구별하여 각 평정자에 따라 ADHD 증상이 사회기술 및 교우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방식의 조절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셋째, ADHD 진단의 각 하위척도(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및 충동성)에 따라 ADHD 증상과 사회기술 및 교우관계문제 간의 관계에서 양육방식의 조절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는 A지역 4개 초등학교에서 5, 6학년 11개 학급의 아동과 부모가 참여하였다. 아동과 부모 각각 286명에게 설문지가 배포되었고, 총 572부 모두 회수되었다. 그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2명의 자료를 제외한 284명의 아동 및 부모에 대한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교사에게 별도의 안내문을 제공하여 교사가 사전에 안내문을 숙지한 후 학생과 부모가 설문을 실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다. 각 아동에게는 아동용 설문지와 부모용 설문지가 배부되었으며, 아동의 경우 부모와 교사의 허락을 받아 아동용 설문지를 교실에서 체크하게 하고, 부모용 설문지는 집으로 가져가서 부모가 작성한 후 아동을 통해 전달되었다. 아동들은 ADHD 증상, 교우관계문제를 측정하는 2개의 검사에 응답하였고, 부모의 경우 아동의 ADHD 증상과 사회기술, 자신의 양육방식을 측정하는 3개의 검사에 대해 보고하도록 하였다. 연구 대상의 성별 구성은 남학생이 166명(58%), 여학생이 115명(40%)이었으며, 5명(2%)은 성별 표시를 하지 않았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5학년이 87명(30%), 6학년이 199명(70%)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본 연구는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참여자들에게 소정의 사은품을 지급하였으며, 연구 시작 전 연구 참여자들에게 자료의 활용과 범위, 연구의 목적과 과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고, 동의를 구하였다.

측정 도구

아동-보고 ADHD 증상

ADHD 증상의 자기 보고 척도는 DSM-IV

(APA, 1994)에 규정된 주의력 결핍과 과잉행동 및 충동성 진단 척도를 위지희와 채규만(2004)이 재구성한 질문지로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은 주의력 결핍과 과잉행동 및 충동성 2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9문항씩 총 18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0=전혀 그렇지 않다, 3=항상 그렇다)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신뢰도(Cronbach's α)는 위지희와 채규만(2004)의 연구에서 .88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전체 문항에 대한 신뢰도가 .88, 주의력 결핍은 .81, 과잉행동 및 충동성은 .83으로 나타났다.

부모-보고 ADHD 증상

부모-보고에 의한 아동의 ADHD 증상 척도는 한국형 단축형 부모용 Swanson, Nolan and Pelhan 제 4판(이하: SNAP-IV)으로 실시하였는데, SNAP-IV는 Swanson(1990)이 개발한 SNAP를 DSM-IV의 진단 기준에 의거하여 재구성한 척도이다(Swanson et al., 2001). SNAP-IV는 주 양육자인 부모가 문항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서완석, 장혜경, 김진성과 이종범(2008)이 번안하여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를 실시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은 주의력 결핍과 과잉행동 및 충동성 2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9문항씩 총 18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0=전혀 그렇지 않다, 3=항상 그렇다)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신뢰도(Cronbach's α)는 서완석 등(2008)의 연구에서 주의력 결핍이 .88, 과잉행동 및 충동성이 .87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전체 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89, 주의력 결핍은 .80, 과잉행동 및 충동성은 .88로 나타났다.

양육방식

부모 양육방식 척도는 Baumrind(1991)의 논의에 기초하여 Robinson, Mandlco, Olsen과 Hart (1995)가 개발한 Parenting Styles and Dimensions Questionnaire(이하: PSDQ)를 본 연구자가 번안한 것으로 교육학 전공 교수 2명과 영어 원어민 교사에게 자문을 받아 수정하여 만들었다. 부모가 보고하는 양육방식 척도는 3개의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민주적 양육방식 문항 27개, 독재적 양육방식 문항 20개, 허용적 양육방식 문항 15개 등 총 6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0=전혀 그렇지 않다, 4=항상 그렇다)로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3개의 역 채점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민주적 양육방식이 .92, 독재적 양육방식이 .84, 허용적 양육방식이 .74로 나타났다.

교우관계문제

교우관계문제는 아동이 자기 보고하는 척도로 정혜원(2007)이 아동용 교우관계문제 검사를 개발하고 타당화 한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이 또래나 교우관계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척도는 Horowitz, Rosenberg, Baer, Ureno와 Villasenor(1988)이 개발한 것을 김영환과 홍상황(1999)이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대인관계문제 검사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총 6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제지배, 자기중심성, 냉담, 사회적 억제, 비주장성, 과순응성, 자기희생, 과관여의 8개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0=전혀 그렇지 않다, 3=아주 많이 그렇다)로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정혜원(2007)의 연구에서는 .94의 신뢰도(Cronbach's α)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를 크게 낮추는 1개 문항을 제외하였으며, 하위요인의 신뢰도는 .74 ~ .82로 나타났고, 전체 신뢰도는 .96이었다.

사회기술

사회기술 척도는 Gresham과 Elliott(1990)이 개발한 척도를 김향지(1996)가 번안하고 타당화 한 자료로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모가 자녀를 평정하는 것으로 총 3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협동, 자기주장, 책임감, 자기통제 4개의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항은 3점 리커트 척도(0=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2=자주 나타난다)로 빈도와 중요성에 따라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기술이 유능함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를 개선하기 위해 4개 문항을 제외하고 총 34개 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신뢰도(Cronbach's α)는 김향지(1996)의 연구에서는 .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하위요인 신뢰도는 .60~.76, 전체 신뢰도는 .85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먼저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 일치도 계수를 구하였으며, 주요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등의 기술 통계치를 확인하여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각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고, 아동과 부모가 각각 보고한 아동의 ADHD 증상이 아동이 보고한 교우관계문제와 부모가 보고한 아동의 사회기술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방식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각 변인

의 점수를 평균중심화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Aiken과 West(1991)가 제안한 조절효과 도식을 사용하여 ADHD 증상 및 양육방식의 평균으로부터 $\pm 1SD$ 인 지점에서 ADHD 증상과 양육방식의 상호작용 양상을 알아보았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각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및 성별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와 왜도 및 첨도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성차를 알아보기 위한 차이검증 결과, 아동-보고 ADHD 증상 합 및 하위요인과 부모-보고 ADHD 증상 합 및 하위요인 모두에서 성차가 유의하였고, 남학생의 증상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상관분석 결과(표 2), 아동-보고 ADHD 증상 합 및 하위요인과 부모-보고 ADHD 증상 합 및 하위요인 간의 높은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양육방식과 아동-보고 ADHD 증상과는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고, 부모-보고 ADHD 증상과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양육방식 중 민주적 양육방식은 부모-보고 ADHD 증상과 부적 상관이 있었고, 독재적 양육방식과 허용적 양육방식은 부모-보고 ADHD 증상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허용적 양육방식과 독재적 양육방식은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 허용적, 독재적 양육방식 모두 민주적 양육방식과는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교우관계문제는 아동-보고 ADHD 증상 및 부모-보고 ADHD 증상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양육방식과는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사회기술은 아동-보고 ADHD

표 1. 각 변인의 성별에 따른 평균, 표준편차, 차이검증, 왜도 및 첨도

변인	남		여		t	왜도	첨도	
	M	SD	M	SD				
아동-보고 ADHD 증상	1. 주의력 결핍	10.25	4.48	9.09	4.64	2.11*	0.080	-0.362
	2. 과잉행동 및 충동성	7.25	4.74	5.30	3.69	3.70**	0.640	-0.250
	3. ADHD 증상 합	17.51	8.31	14.39	7.47	3.22**	0.308	-0.343
부모-보고 ADHD 증상	4. 주의력 결핍	10.18	5.10	8.67	4.99	2.37*	0.181	-0.400
	5. 과잉행동 및 충동성	6.19	4.53	4.73	4.40	2.58*	1.000	0.865
	6. ADHD 증상 합	16.37	8.68	13.40	8.44	2.74**	0.542	0.203
부모-보고 양육방식	7. 민주적	68.08	15.90	69.00	14.22	-0.46	-0.337	-0.239
	8. 독재적	25.43	10.96	23.56	7.92	1.48	0.886	1.643
	9. 허용적	15.91	7.04	14.89	6.05	1.20	1.089	2.229
아동-보고 교우관계문제	10. 통제지배	4.25	3.60	3.64	3.35	1.43	1.511	3.384
	11. 자기중심성	4.27	3.12	3.46	2.99	2.16*	1.365	2.850
	12. 냉담	4.53	3.78	4.07	3.69	1.01	1.212	1.509
	13. 사회적 억제	4.31	3.74	3.75	3.87	1.22	1.355	2.160
	14. 비주장성	5.20	4.18	5.04	4.77	.29	1.025	0.751
	15. 과순응성	4.66	3.96	4.82	4.01	-0.32	1.364	2.918
	16. 자기희생	4.86	3.82	5.13	3.97	0.57	1.220	2.579
	17. 과관여	4.40	3.83	4.83	3.78	-0.93	1.281	2.638
18. 교우관계문제 합	35.85	25.38	31.58	21.42	1.42	1.300	2.560	
부모-보고 사회기술	19. 협동	10.54	3.82	11.31	3.12	-1.70	0.465	3.339
	20. 자기주장	10.51	2.58	11.10	2.35	-1.86	-0.124	-0.291
	21. 책임감	12.01	3.26	13.12	2.53	-2.96**	-0.120	0.125
	22. 자기통제	8.70	2.43	8.52	2.04	0.62	0.217	0.099
	23. 사회기술 합	39.86	8.88	41.31	7.30	-1.31	0.021	-0.069

* $p < .05$, ** $p < .01$

증상과 $p < .05$ 수준의 부적 상관을 보였고, 부모-보고 ADHD 증상과는 $p < .01$ 수준의 부적 상관을 보였다. 사회기술은 양육방식 중 민주적 양육방식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

지만, 독재적 양육방식과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고, 허용적 양육방식과는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교우관계문제와 사회기술 간에는 $p < .05$ 수준의 부적 상관이 있었다.

표 2. 각 변인 간 상관계수

변인	상관계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1. 주의력 결핍	1																							
2. 과잉행동 및 충동성	.62**	1																						
3. ADHD 증상 합	.90**	.90**	1																					
4. 주의력 결핍	.37**	.34**	.39**	1																				
5. 과잉행동 및 충동성	.37**	.36**	.40**	.65**	1																			
6. ADHD 증상 합	.41**	.38**	.44**	.92**	.90**	1																		
7. 민주적	-.07	-.01	-.05	-.27**	-.18**	-.25**	1																	
8. 독재적	.05	.00	.03	.19**	.26**	.25**	-.15*	1																
9. 허용적	-.02	.05	.04	.24**	.30**	.29**	-.45**	.50**	1															
10. 통제거래	.37**	.44**	.45**	.17**	.23**	.22**	.03	.07	.02	1														
11. 자기증상성	.33**	.30**	.35**	.13*	.20**	.18**	-.04	.07	-.04	.61**	1													
12. 방담	.42**	.35**	.42**	.19**	.20**	.22**	-.02	.00	.00	.58**	.66**	1												
13. 사회적 억제	.36**	.26**	.35**	.18**	.21**	.22**	-.07	.03	.02	.57**	.65**	.82**	1											
14. 비주장성	.40**	.31**	.39**	.10	.13*	.13*	-.06	.00	.03	.44**	.55**	.76**	.79**	1										
15. 과순응성	.34**	.28**	.35**	.08	.09	.09	-.04	.08	.03	.47**	.56**	.67**	.71**	.80**	1									
16. 자기회생	.21**	.19**	.22**	.08	.11	.10	.03	.01	.03	.50**	.47**	.54**	.52**	.58**	.69**	1								
17. 과편여	.37**	.37**	.41**	.14*	.20**	.19**	.01	.03	.09	.73**	.55**	.59**	.58**	.58**	.64**	.70**	1							
18. 과우관계문제 합	.43**	.38**	.45**	.17**	.21**	.21**	-.03	.05	.03	.74**	.77**	.86**	.87**	.85**	.85**	.77**	.82**	1						
19. 협동	-.16*	-.12	-.15*	-.40**	-.27**	-.37**	.34**	-.07	-.17**	-.06	-.11	-.10	-.13*	-.10	-.12	-.05	-.10	-.12	1					
20. 자기주장	.00	-.06	-.03	-.21**	-.16*	-.20**	.37**	-.03	-.11	-.04	-.05	-.04	-.17**	-.12	-.08	.11	-.03	-.07	.42**	1				
21. 책임감	-.16*	-.20**	-.20**	-.32**	-.29**	-.34**	.43**	-.05	-.19**	-.10	-.13*	-.09	-.19**	-.16*	-.13*	.00	-.12	-.15*	.47**	.54**	1			
22. 자기통제	-.12	-.11	-.13*	-.28**	-.32**	-.33**	.34**	.01	-.12	-.09	-.04	.00	-.08	-.06	.02	.02	-.07	-.04	.38**	.41**	.55**	1		
23. 사회기술 합	-.14*	-.15*	-.16*	-.40**	-.33**	-.40**	.48**	-.05	-.19**	-.09	-.11	-.08	-.19**	-.14*	-.11	-.03	-.10	-.13*	.76**	.79**	.82**	.72**	1	

* $p < .05$, ** $p < .01$

아동-보고 ADHD 증상

아동이 보고한 ADHD 증상이 교우관계문제 및 부모가 보고한 아동의 사회기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모가 보고한 양육방식의 조절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아동이 보고한 ADHD 증상 합,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및 충동성 중 한 변인(예측변인)과 양육방식 하위요인인 민주적 양육방식, 독재적 양육방식, 허용적 양육방식 중 한 변인(조절변인)을 투입하였고, 2단계에서는 두 변인의 상호작용 항을 추가로 투

표 3. 아동-보고 ADHD 증상과 교우관계문제 및 사회기술의 관계에서 양육방식의 조절효과 검증 결과

준거변인	모형	B	SE	β	t	R ²	ΔR^2	
(교우관계문제 하위) 자기중심성	(상수)	1.478	0.891		1.659			
	1 (C)	0.186	0.022	.485	8.431***			
	(D)	0.002	0.011	.010	0.175	.235	.229	
	(상수)	1.566	0.874		1.791			
	2 (C)	0.179	0.022	.465	8.194***			
	(D)	0.003	0.011	.014	0.249			
	(C × (D))	0.005	0.002	.181	3.189**	.268	.258	
	(상수)	0.956	0.998		0.957			
	1 (C)	0.199	0.025	.466	8.037***			
	(D)	0.001	0.013	.002	0.040	.217	.211	
	(상수)	0.979	0.991		0.988			
	(교우관계문제 하위) 냉담	2 (C)	0.193	0.025	.451	7.774***		
(D)	0.002	0.013	.009	0.153				
(C × (D))	0.004	0.002	.123	2.114*	.232	.222		
ADHD 증상 합(C) × 민주적 양육(D)	(상수)	1.949	0.991		1.968			
	1 (C)	0.162	0.025	.395	6.547***			
	(D)	-0.011	0.013	-.050	-0.834	.160	.153	
	(상수)	1.984	0.973		2.040*			
	(교우관계문제 하위) 사회적 억제	2 (C)	0.152	0.024	.371	6.217***		
	(D)	-0.008	0.013	-.040	-0.678			
	(C × (D))	0.005	0.002	.186	3.105**	.194	.184	
	(상수)	1.345	1.051		1.279			
	1 (C)	0.175	0.026	.402	6.683***			
	(D)	0.005	0.013	.023	0.376	.161	.154	
	(상수)	1.373	1.041		1.318			
	(교우관계문제 하위) 과관여	2 (C)	0.167	0.026	.384	6.409***		
(D)	0.007	0.013	.030	0.504				
(C × (D))	0.004	0.002	.141	2.354*	.180	.170		

표 3. 아동-보고 ADHD 증상과 교우관계문제 및 사회기술의 관계에서 양육방식의 조절효과 검증 결과 (계속 1)

준거변인	모형	B	SE	β	t	R ²	ΔR^2			
ADHD 증상 합(C) × 민주적 양육(D)	교우관계문제 합	(상수)	14.974	6.381		2.347*				
		1	(C)	1.301	0.159	.474	8.187***			
		(D)	-0.007	0.082	-.005	-0.085	.225	.218		
		(상수)	15.172	6.291		2.412*				
		2	(C)	1.247	0.158	.454	7.901***			
		(D)	0.005	0.081	.004	0.062				
	(C × D)	0.030	0.011	.160	2.778**	.250	.240			
	주의력 결핍(A) × 민주적 양육(D)	(교우관계문제 하위) 사회적 억제	(상수)	1.524	1.004		1.517			
			1	(A)	0.291	0.043	.411	6.848***		
			(D)	-0.008	0.013	-.039	-0.643	.173	.165	
(상수)			1.848	1.001		1.846				
2			(A)	0.267	0.043	.376	6.180***			
(D)			-0.009	0.013	-.042	-0.710				
(A × D)		0.007	0.003	.153	2.526*	.195	.184			
과잉행동 및 충동성(B) × 민주적 양육(D)		(교우관계문제 하위) 과관여	(상수)	1.120	1.080		1.036			
			1	(A)	0.292	0.045	.389	6.428***		
			(D)	0.007	0.014	.033	0.545	.151	.143	
	(상수)		1.396	1.082		1.291				
	2		(A)	0.272	0.046	.362	5.887***			
	(D)		0.007	0.014	.030	0.497				
	(A × D)	0.006	0.003	.125	2.035*	.166	.155			
	교우 관계 문제 합	교우 관계 문제 합	(상수)	11.386	6.588		1.728			
			1	(A)	2.362	0.277	.489	8.521***		
			(D)	0.016	0.083	.011	0.190	.238	.232	
(상수)			13.333	6.578		2.027*				
2			(A)	2.219	0.281	.459	7.892***			
(D)			0.011	0.082	.008	0.133				
(A × D)		0.045	0.019	.136	2.345*	.256	.246			
과잉행동 및 충동성(B) × 민주적 양육(D)		(교우관계문제 하위) 과관여	(상수)	3.224	0.990		3.256**			
			1	(B)	0.269	0.048	.344	5.565***		
			(D)	-0.007	0.013	-.034	-0.546	.119	.112	
	(상수)		3.040	0.989		3.075**				
	2		(B)	0.264	0.048	.336	5.470***			
	(D)		-0.004	0.013	-.019	-0.306				
	(B × D)	0.007	0.003	.122	1.967*	.134	.123			

표 3. 아동-보고 ADHD 증상과 교우관계문제 및 사회기술의 관계에서 양육방식의 조절효과 검증 결과 (계속 2)

준거변인	모형	B	SE	β	t	R ²	ΔR^2		
과잉행동 및 충동성(B) × 민주적 양육(D)	교우관계문제 합	(상수)	25.912	6.380		4.061***			
		(B)	1.880	0.314	.366	5.992***			
		(D)	-0.035	0.086	-.024	-0.401	.135	.127	
	2	(상수)	24.644	6.362		3.873***			
		(B)	1.840	0.314	.358	5.897***			
		(D)	-0.012	0.086	-.009	-0.143			
	(B × D)	0.046	0.022	.129	2.107*	.151	.140		
	(사회기술 하위) 책임감	1	(상수)	7.023	0.797		8.809***		
			(B)	-0.102	0.039	-.149	-2.619**		
			(D)	0.089	0.011	.470	8.246***	.245	.239
		2	(상수)	7.157	0.795		9.004***		
			(B)	-0.097	0.039	-.142	-2.494*		
(D)			0.086	0.011	.457	8.014***			
(B × D)	-0.005	0.003	-.115	-2.012*	.258	.249			

* $p < .05$, ** $p < .01$, *** $p < .001$

입하였다. 준거변인은 아동이 보고한 교우관계문제 점수 합 및 8개의 하위요인(통제지배, 자기중심성, 냉담, 사회적 억제, 비주장성, 과순응성, 자기희생, 과관여)과 부모가 보고한 사회기술 점수 합 및 4개의 하위요인(협동, 자기주장, 책임감, 자기통제) 등 총 14개 변인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그리고 조절효과가 유의한 경우 효과의 패턴을 알아보기 위해 ADHD 증상 점수의 평균에서 ± 1 표준편차인 점수로 고집단과 저집단을 구별하고, 양육방식 점수의 평균에서 ± 1 표준편차인 점수로 고집단과 저집단을 구별하여 그림으로 표현하였다. 조절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난 분석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ADHD 증상 합과 교우관계문제 및 사회기술의 관계에서 양육방식의 조절효과

아동이 보고한 ADHD 증상 합이 교우관계

문제 및 사회기술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방식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1단계에 아동이 보고한 ADHD 증상 합(예측변인)과 민주적, 독재적, 허용적 양육방식 중 한 변인(조절변인)을 투입하고, 2단계에 두 변인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총 14개의 준거변인 중 교우관계문제 합($\beta = .160, p < .01$)과 하위요인인 자기중심성($\beta = .181, p < .01$), 냉담($\beta = .123, p < .05$), 사회적 억제($\beta = .186, p < .01$), 과관여($\beta = .141, p < .05$) 5개 변인에서 민주적 양육방식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였다(표 3). ADHD 증상 합과 교우관계문제 합의 관계에서 민주적 양육방식의 조절효과를 도식화하여 그림 1에 제시하였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높은 수준의 ADHD 증상 합을 보고하는 아동에게 민주적 양육방식을 많이 사용할수록 교우관계문제 합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ADHD 증상 합과 교우관계문제의 관계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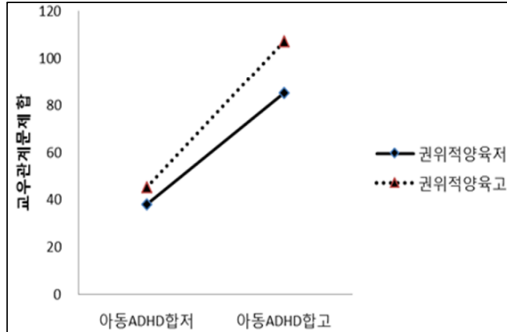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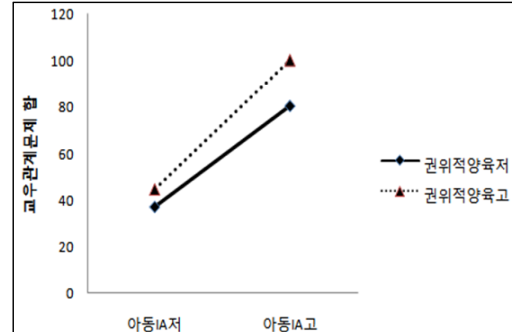


그림 1. 아동-보고 ADHD 증상 합과 교우관계문제 합의 관계에서 권위적 양육방식의 조절효과



주. IA=주의력 결핍

그림 2. 아동-보고 주의력 결핍과 교우관계문제 합의 관계에서 권위적 양육방식의 조절효과

양육방식 중 독재적 양육방식과 허용적 양육방식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았고, ADHD 증상 합과 사회기술의 관계에서 양육방식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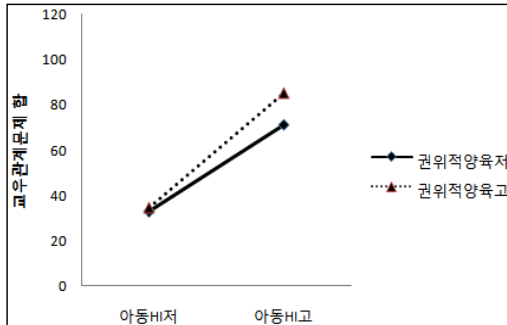
주의력 결핍과 교우관계문제 및 사회기술의 관계에서 양육방식의 조절효과

아동이 보고한 주의력 결핍이 교우관계문제 및 사회기술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방식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1단계에 아동이 보고한 주의력 결핍(예측변인)과 민주적, 독재적, 허용적 양육방식 중 한 변인(조절변인)을 투입하고, 2단계에 두 변인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14개의 준거변인 중 교우관계문제 합($\beta=.136, p<.05$)과 하위요인인 사회적 억제($\beta=.153, p<.05$), 과관여($\beta=.125, p<.05$) 3개 변인에서 민주적 양육방식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였다(표 3). 주의력 결핍과 교우관계문제 합의 관계에서 민주적 양육방식의 조절효과를 도식화하여 그림 2에 제시하였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높은 수준의 주의력 결핍을 보고하는 아동에게 민주적 양육방식을 많이 사용할수록 교우관계문제 합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의력 결핍

과 교우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양육방식 중 독재적 양육방식과 허용적 양육방식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았고, 주의력 결핍과 사회기술의 관계에서 양육방식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과잉행동 및 충동성과 교우관계문제 및 사회기술의 관계에서 양육방식의 조절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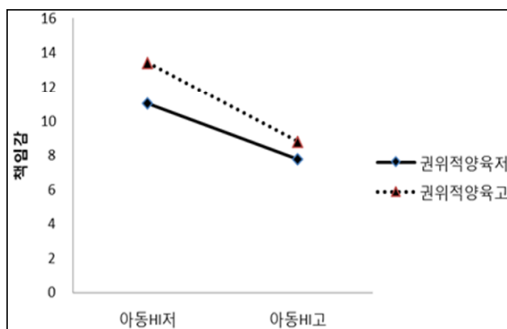
아동이 보고한 과잉행동 및 충동성이 교우관계문제 및 사회기술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방식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1단계에 아동이 보고한 과잉행동 및 충동성(예측변인)과 민주적, 독재적, 허용적 양육방식 중 한 변인(조절변인)을 투입하고, 2단계에 두 변인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14개의 준거변인 중 교우관계문제 합($\beta=.129, p<.05$)과 하위요인인 과관여($\beta=.122, p<.05$), 사회기술의 하위요인인 책임감($\beta=-.115, p<.05$) 3개 변인에서 민주적 양육방식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였다(표 3). 과잉행동 및 충동성과 교우관계문제 합의 관계에서 민주적 양육방식의 조절효과를 도식화하여 그림 3에 제시하였다.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높은 수준의 과



주. HI=과잉행동 및 충동성

그림 3. 아동-보고 과잉행동 및 충동성과 교우관계문제 합과의 관계에서 권위적 양육방식의 조절효과

잉행동 및 충동성을 보고하는 아동에게 민주적 양육방식을 많이 사용할수록 교우관계문제 합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과잉행동 및 충동성과 교우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양육방식 중 독재적 양육방식과 허용적 양육방식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과잉행동 및 충동성과 사회기술 하위요인인 책임감의 관계에서 민주적 양육방식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그림 4).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낮은 수준의 과잉행동 및 충동성을 지닌 아동에게 민주적 양육방식을 많이 사용했을 때에는 책임감이



주. HI=과잉행동 및 충동성

그림 4. 아동-보고 과잉행동 및 충동성과 사회기술 하위요인 책임감의 관계에서 권위적 양육방식의 조절효과

더 높아지지만, 높은 수준의 과잉행동 및 충동성을 보고하는 아동의 경우 책임감에 대한 민주적 양육방식의 긍정적인 효과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보고 ADHD 증상

부모가 보고한 ADHD 증상이 교우관계문제 및 부모가 보고한 아동의 사회기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모가 보고한 양육방식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부모가 보고한 ADHD 증상 합,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및 충동성 중 한 변인(예측변인)과 양육방식 하위요인인 민주적 양육방식, 독재적 양육방식, 허용적 양육방식 중 한 변인(조절변인)을 투입하였고, 2단계에서는 두 변인의 상호작용 항을 추가로 투입하였다. 준거변인은 아동이 보고한 교우관계문제 점수 합 및 8개의 하위요인(통제지배, 자기중심성, 냉담, 사회적 억제, 비주장성, 과순응성, 자기희생, 과관여)과 부모가 보고한 사회기술 점수 합 및 4개의 하위요인(협동, 자기주장, 책임감, 자기통제) 등 총 14개 변인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그리고 조절효과가 유의한 경우 효과의 패턴을 알아보기 위해 ADHD 증상 점수의 평균에서 ± 1 표준편차인 점수로 고집단과 저집단을 구별하고, 양육방식 점수의 평균에서 ± 1 표준편차인 점수로 고집단과 저집단을 구별하여 그림으로 표현하였다. 조절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난 분석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ADHD 증상 합과 교우관계문제 및 사회기술의 관계에서 양육방식의 조절효과

부모가 보고한 ADHD 증상 합이 교우관계

표 4. 부모-보고 ADHD 증상과 교우관계문제 및 사회기술의 관계에서 양육방식의 조절효과 검증 결과

준거변인	모형	B	SE	β	t	R ²	ΔR^2		
ADHD 증상 함(C) × 민주적 양육(D)	(사회기술 하위) 자기통제	(상수)	8.828	0.806		10.950***			
		1 (C)	-0.074	0.017	-.264	-4.367***			
		(D)	0.047	0.010	.283	4.673***	.187	.180	
	2	(상수)	8.382	0.798		10.507***			
		(C)	-0.069	0.017	-.247	-4.157***			
		(D)	0.050	0.010	.304	5.111***			
	(C × D)	-0.004	0.001	-.203	-3.509**	.227	.217		
	사회기술 합	(상수)	34.589	2.741		12.618***			
		1 (C)	-0.304	0.057	-.295	-5.321***			
		(D)	0.255	0.034	.414	7.477***	.319	.313	
		2	(상수)	33.419	2.741		12.191***		
			(C)	-0.291	0.057	-.282	-5.138***		
(D)			0.264	0.034	.429	7.802***			
(C × D)	-0.010	0.004	-.143	-2.676**	.339	.331			
(사회기술 하위) 협동	1	(상수)	8.645	1.065		8.114***			
		(A)	-0.195	0.038	-.308	-5.130***			
		(D)	0.058	0.013	.269	4.481***	.211	.204	
	2	(상수)	8.259	1.074		7.691***			
		(A)	-0.188	0.038	-.298	-4.980***			
		(D)	0.061	0.013	.283	4.720***			
	(A × D)	-0.006	0.003	-.121	-2.088*	.225	.215		
	주의력 결핍(A) × 민주적 양육(D)	(사회기술 하위) 자기통제	(상수)	8.501	0.845		10.066***		
			1 (A)	-0.097	0.030	-.199	-3.217**		
(D)			0.049	0.010	.295	4.751***	.158	.151	
2		(상수)	8.030	0.840		9.555***			
		(A)	-0.089	0.030	-.183	-2.999**			
		(D)	0.053	0.010	.317	5.181***			
(A × D)	-0.007	0.002	-.192	-3.255**	.194	.184			
사회기술 합	1	(상수)	34.826	2.841		12.260***			
		(A)	-0.499	0.101	-.278	-4.954***			
		(D)	0.254	0.035	.413	7.346***	.309	.304	
	2	(상수)	33.270	2.830		11.756***			
		(A)	-0.472	0.099	-.263	-4.756***			
		(D)	0.266	0.034	.432	7.793***			
(A × D)	-0.022	0.007	-.170	-3.178**	.338	.329			

표 4. 부모-보고 ADHD 증상과 교우관계문제 및 사회기술의 관계에서 양육방식의 조절효과 검증 결과 (계속)

준거변인	모형	B	SE	β	t	R ²	ΔR^2		
과잉행동 및 충동성(B) × 민주적 양육(D)	(사회기술 하위) 자기통제	(상수)	8.368	0.741		11.290***	.197	.190	
		1 (B)	-0.149	0.032	-.280	-4.734***			
		(D)	0.050	0.010	.299	5.040***			
		(상수)	8.173	0.727		11.249***			
		2 (B)	-0.151	0.031	-.284	-4.896***			
		(D)	0.051	0.010	.309	5.325***			
	(B) × (D)	-0.007	0.002	-.198	-3.470**	.236	.227		
	사회기술 합	(상수)	31.608	2.573		12.283***	.300	.294	
		1 (B)	-0.503	0.109	-.254	-4.596***			
		(D)	0.273	0.034	.442	7.992***			
		(상수)	31.208	2.564		12.172***			
		2 (B)	-0.506	0.109	-.256	-4.656***			
		(D)	0.276	0.034	.448	8.135***			
		(B) × (D)	-0.015	0.007	-.110	-2.032*			.312

* $p < .05$, ** $p < .01$, *** $p < .001$

문제 및 사회기술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방식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1단계에 부모가 보고한 ADHD 증상 합(예측변인)과 민주적, 독재적, 허용적 양육방식 중 한 변인(조절변인)을 투입하고, 2단계에 두 변인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총 14개의 준거변인 중 사회기술 합($\beta = -.143$, $p < .01$)과 하위요인인 자기통제($\beta = -.203$, $p < .01$) 2개 변인에서 민주적 양육방식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였다(표 4). ADHD 증상 합과 사회기술 합의 관계에서 민주적 양육방식의 조절효과를 도식화하여 그림 5에 제시하였다.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낮은 수준의 ADHD 증상 합을 보고하는 아동에게 민주적 양육방식을 많이 사용할수록 아동의 사회기술 합이 높아졌지만, 높은 수준의 ADHD 증상 합을 보고하는 아동에게는 사회기술에 대한 민주적 양육방식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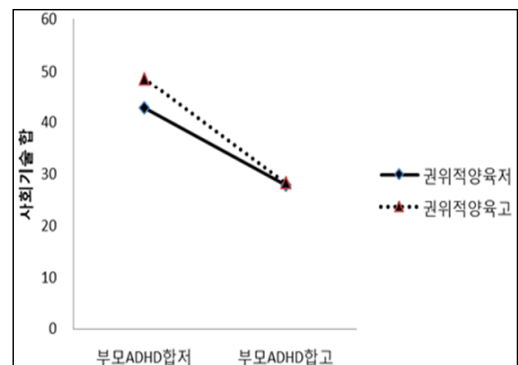


그림 5. 부모-보고 ADHD 증상 합과 사회기술 합의 관계에서 권위적 양육방식의 조절효과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ADHD 증상 합과 사회기술의 관계에서 양육방식 중 독재적 양육방식과 허용적 양육방식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았고, ADHD 증상 합과 교우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양육방식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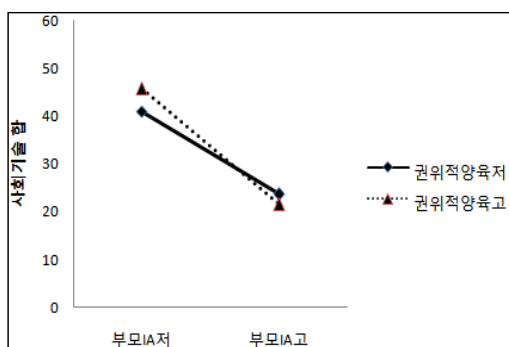
주의력 결핍과 교우관계문제 및 사회기술의 관계에서 양육방식의 조절효과

부모가 보고한 주의력 결핍이 교우관계문제 및 사회기술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방식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1단계에 부모가 보고한 주의력 결핍(예측변인)과 민주적, 독재적, 허용적 양육방식 중 한 변인(조절변인)을 투입하고, 2단계에 두 변인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14개의 준거변인 중 사회기술 합($\beta=-.170, p<.01$)과 하위요인인 협동($\beta=-.121, p<.05$), 자기통제($\beta=-.192, p<.01$) 3개 변인에서 민주적 양육방식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였다(표 4). 주의력 결핍과 사회기술 합의 관계에서 민주적 양육방식의 조절효과를 도식화하여 그림 6에 제시하였다.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낮은 수준의 주의력 결핍을 보고하는 아동에게 민주적 양육방식이 많이 사용될수록 아동의 사회기술 합은 높아졌지만, 높은 수준의 주의력 결핍을 보고하는 아동에게는 사회기술에 대한 민주적 양육방식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의력 결핍과 사회기술의 관계에서 양육방식 중 독재적 양육방식과 허용적 양육방식의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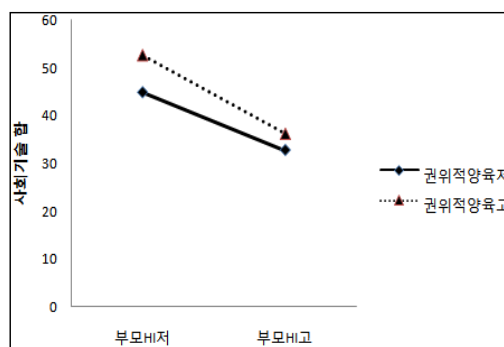
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았고, 주의력 결핍과 교우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양육방식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과잉행동 및 충동성과 교우관계문제 및 사회기술의 관계에서 양육방식의 조절효과

부모가 보고한 과잉행동 및 충동성이 교우관계문제 및 사회기술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방식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1단계에 부모가 보고한 과잉행동 및 충동성(예측변인)과 민주적, 독재적, 허용적 양육방식 중 한 변인(조절변인)을 투입하고, 2단계에 두 변인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사회기술 합($\beta=-.110, p<.05$)과 하위요인인 자기통제($\beta=-.198, p<.01$) 2개 변인에서 민주적 양육방식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였다(표 4). 과잉행동 및 충동성과 사회기술 합의 관계에서 민주적 양육방식의 조절효과를 도식화하여 그림 7에 제시하였다.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낮은 수준의 과잉행동 및 충동성을 지닌 아동에게 민주적 양육방식을 많이 사용했을 때에는 사회기술이 더 높아지지만, 높은 수준의 과잉행동 및 충동성을 보고하는 아동의 경



주. IA=주의력 결핍
그림 6. 부모-보고 주의력 결핍과 사회기술 합의 관계에서 권위적 양육방식의 조절효과



주. HI=과잉행동 및 충동성
그림 7. 부모-보고 과잉행동 및 충동성과 사회기술 합의 관계에서 권위적 양육방식의 조절효과

우 사회기술에 대한 민주적 양육방식의 긍정적인 효과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과잉행동 및 충동성과 사회기술의 관계에서 양육방식 중 독재적 양육방식과 허용적 양육방식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았고, 과잉행동 및 충동성과 교우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양육방식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논 의

본 연구는 아동의 ADHD 증상이 교우관계 문제 및 사회기술에 미치는 영향이 부모의 양육방식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특히 ADHD 증상에 대한 평정자간 일치도가 낮았던 선행연구 결과(Bird et al., 1992; Jensen et al., 1999)에 따라 ADHD 증상에 대한 아동과 부모의 지각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여 다양한 시각으로 현상을 이해하고자 아동이 보고한 ADHD 증상과 부모가 보고한 ADHD 증상을 구분하였다. 또한 또래관계에 대한 아동 본인과 부모의 지각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Wiener & Mak, 2009)을 고려하여 아동이 지각하는 또래관계 문제와 부모가 지각하는 아동의 사회기술에 대한 효과를 알아보았다. 이와 더불어, ADHD 하위 유형에 따라 또래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의 양상이 달라진다는 선행연구 결과(이동훈 등, 2013; Wheeler & Carlson, 1994)에 따라 ADHD 증상을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및 충동성, 두 증상의 합으로 구분하여 각 하위유형이 교우관계문제 및 사회기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았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이 보고한 ADHD 증상과 부모가

보고한 ADHD 증상 간에는 상관이 유의하였지만 .34~.44 수준으로 낮았다. 이는 ADHD 증상에 대한 아동과 부모의 지각이 서로 다를 것이라는 연구자의 예상과 일치하며, ADHD 증상에 대한 평정자 간 일치도를 알아보았던 선행연구 결과(Bird et al., 1992; Jensen et al., 1999)와도 일관된다. 아동이 보고한 ADHD 증상은 아동이 보고한 교우관계문제와 정적 상관이 있었지만, 부모가 보고한 양육방식과는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부모가 보고한 사회기술과는 약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부모가 보고한 ADHD 증상은 부모가 보고한 사회기술 및 민주적 양육방식과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독재적 및 허용적 양육방식과 정적 상관이 나타났지만, 아동이 보고한 교우관계문제 중 일부 하위요인과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ADHD 증상 및 또래관계에 대한 아동과 부모의 지각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부모가 양육방식을 보고하고 아동이 또래관계를 보고한 연구(이귀숙, 정현희, 2006)에서는 양육방식과 실제 아동의 또래관계 간의 상관이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고, 아동이 양육방식과 또래관계를 모두 보고한 연구(임연정, 진미경, 2015)에서는 양육방식이 또래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육방식에 대한 아동과 부모의 지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양육방식의 평정자를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따라 연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아동이 보고한 ADHD 각 하위 유형과 교우관계문제의 모든 하위요인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그 중 냉담, 사회적 억제, 비주장성은 주의력 결핍과 더 높은 정적 상관이 나타났고, 통제지배는 과잉행동 및 충

동성과 더 높은 상관이 나타났다. 또한 부모가 보고한 ADHD 각 하위 유형과 사회기술의 모든 하위요인은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으며, 그 중 협동은 주의력 결핍과 더 높은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냉담, 사회적 억제, 비주장성, 협동 등의 요인은 사회적 철수나 사회적 상황에서의 위축되고 소극적인 태도를 반영하며, 통제지배는 상대방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자기주장을 내세우는 태도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ADHD 증상을 지닌 아동들이 대체로 다양한 또래관계의 어려움을 보이지만 하위 유형에 따라 어려움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선행연구(이동훈 등, 2013; Wheeler & Carlson, 1994)와 일치한다.

셋째, 또래관계의 긍정적인 측면인 사회기술에 미치는 ADHD 증상의 영향에 있어 민주적 양육태도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였다. ADHD 증상이 낮은 집단에서는 Baumrind(1991)의 제안과 일관되게 민주적 양육태도가 높을 때 사회기술이 더 높았지만, ADHD 증상이 높아질수록 민주적 양육태도가 높을 때 사회기술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아동의 감정과 욕구에 귀를 기울이는 민주적 양육태도가 ADHD 증상을 보이지 않는 아동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ADHD 증상을 지닌 아동이 보이는 낮은 사회기술을 보완해주지는 못함을 시사한다. 이는 ADHD 증상에 따르는 학업적응의 어려움을 민주적 양육방식이 보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Jones 등(2015)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넷째, 또래관계의 부정적인 측면인 교우관계문제에 미치는 ADHD 증상의 영향에 있어 민주적 양육방식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였다. ADHD 증상이 높을 때에는 민주적 양육방식

을 많이 사용할수록 교우관계문제가 증가하였다. 이는 민주적 양육방식이 ADHD 증상을 지닌 아동이 겪는 교우관계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민주적 양육방식을 측정하는 문항들이 ‘나는 아이가 화나고 슬플 때에 이해해주고 위로해준다’, ‘나는 아이에게 부모와 의견이 다르더라도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독려하는 편이다’, ‘나는 아이와 농담도 하고 놀아준다’, ‘나는 아이에게 아이가 하는 행동의 결과에 대해 설명해 주는 편이다’ 등 합리적이며 공감적인 양육태도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본 연구의 결과는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자녀의 대인관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Baumrind(1991)의 제안을 지지하지 않는다. 민주적 양육방식이 ADHD 증상을 보이는 아동의 또래관계문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래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 및 부모가 보고한 ADHD 증상과 교우관계문제 및 사회기술의 관계에서 나타난 민주적 양육방식의 조절효과는 같은 방향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적 상황에서 사회적 지식 및 기술의 부족이나 행동 억제의 어려움으로 또래와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ADHD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아동의 의견에 귀 기울이거나 아동의 행동을 말로 반영해주는 정도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행동문제를 개선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그보다는 아동이 사회적 상황을 이해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직접 배울 수 있도록 돕는 더 적극적인 방식의 개입이 필요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는 ADHD 아동의 또래관계에 도움이 될 만한 대안적인 양육방식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

서는 ADHD 아동의 사회적 이해력과 자원을 기르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양육방식을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부정적인 양육방식이 ADHD 증상을 지닌 아동의 또래관계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독재적 양육방식과 허용적 양육방식은 ADHD 증상이 사회기술 및 교우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조절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독재적 및 허용적 양육방식을 조절변수로 두고 교우관계문제를 준거변수로 한 회귀모형들의 설명량(R^2)은 .05 이하로 매우 낮았고, 사회기술에 대해서는 조절효과 뿐만 아니라 주효과도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 독재적 및 허용적 양육방식은 사회기술과 교우관계문제로 측정된 아동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허용적 양육방식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만한 선행연구 결과는 충분하지 않지만, 독재적 양육방식의 경우 지나치게 통제적인 양육방식이 아동의 또래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Hurt et al., 2007; Kaiser et al., 2011)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본 연구의 결과로는 ADHD 증상을 지닌 아동의 또래관계에는 부정적인 양육방식의 유무보다는 긍정적인 양육방식이 중요한 영향력을 지닌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향후 연구를 통해 이에 대한 경험적 지지 근거가 더 확보될 필요가 있겠다.

여섯째, ADHD 증상의 하위 유형 별로 민주적 양육방식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을 때, 아동이 보고한 주의력 결핍에서는 교우관계문제 하위요인인 사회적 억제, 과관여에서 조절효과가 나타났고, 과잉행동 및 충동성에서는 교우관계문제 하위요인인 과관여와 사회기술 하위요인인 책임감에서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부모가 보고한 주의력 결핍에서는 사회기술의 하위요인인 협동, 자기통제에서 조절효과가 나타났고, 과잉행동 및 충동성에서는 자기통제에서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교우관계문제 및 사회기술의 다른 하위 요인들을 살펴보았을 때, 민주적 양육방식은 교우관계문제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사회기술에서는 민주적 양육방식이 높아질수록 사회기술도 높아지는 주효과만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민주적 양육방식이 ADHD 증상을 보이는 아동이 또래관계에서 흔히 보이는 다양한 문제들 중에서도 특히 타인에게 끼어들과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기 어려워하는 충동성을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반영한다. 또한 민주적 양육방식이 주의력 결핍 유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회적 억제, 소극적이고 비협조적 태도 문제를 악화시킨다는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본 연구에서는 민주적 양육방식이 ADHD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능력의 결핍을 악화시킨다는 현상을 확인하였지만, 민주적 양육방식의 어떠한 특성이 충동성이나 사회적 억제, 협동 능력을 악화시키는지 밝히기에는 한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져서 권장되는 민주적 양육방식이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 ADHD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밝히는 연구가 향후 이루어진다면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애를 써도 아동의 ADHD 증상과 대인관계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것에 좌절하는 많은 부모들이 아동에 대해 보다 적절한 개입방식을 찾아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최근 연구들에서 ADHD 아동의 또래관계에 대한 치료적 개입으로 ADHD 아동에 대한 개입과 부모에 대한 양육훈련 및 양육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부모훈련을 병합한 치료 프로그램이 ADHD 아동에 대한 개입만 포함된 치료 프로그램에 비해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임혜정, 김혜리, 손정우, 김영랑, 2008; Webster-Stratton, Reid, & Beauchaine, 2011),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국내 ADHD 아동의 실제 치료 장면에서 반영하려는 노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이동훈 등, 2013). 본 연구에서는 ADHD 증상이 있는 아동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양육방식의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일반 아동과 비교했을 때 ADHD 증상이 있는 아동의 또래관계에 양육방식이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ADHD 아동의 부모에 대한 양육태도 훈련을 위한 계획 및 예후 예측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설계에서는 ADHD 증상에 대한 아동과 부모의 지각 차이를 고려하였지만 양육방식에 대한 아동과 부모의 지각 차이를 고려하지는 못하였다. 부모가 지각하는 양육방식은 자녀와의 친밀함이나 갈등 수준, 혹은 부모 자신의 정서적 문제 여부에 따라 편향이 발생할 수 있고, 아동이 지각하는 양육방식 또한 부모에 대한 만족도나 아동의 정서적 문제에 따라 편향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이 보고한 부모의 양육방식을 연구에 포함시킨다면 부모와 아동의 양육방식에 대한 지각의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양육방식이 부모-아동 관계, 아동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다각적이고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에게는 또래관계의 부정적인 측면인 교우관계문제를 측정하였고 부모에게는 아동의 또래관계의 긍정적인 측면인 사회기술을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아

동이 보고한 ADHD 증상은 주로 교우관계문제에서 큰 영향력이 있었고 부모가 보고한 ADHD 증상은 사회기술에서만 큰 영향력을 나타내었는데, 이러한 연구 결과의 차이가 아동과 부모의 지각의 차이로 인한 것인지, 또래관계의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특징의 차이로 인한 것인지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또래관계에 대한 아동과 부모의 지각 차이를 보다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아동과 부모 모두를 대상으로 동일한 변인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의 대상은 아동의 ADHD 유무를 구별하지 않고 전체 초등학교 5, 6학년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ADHD 척도를 사용하여 DSM-5 진단기준에 따라 대상 아동의 ADHD 진단기준 충족 여부를 살펴보았을 때, ADHD 진단기준을 충족하는 아동의 비율은 자기-보고에서 전체 286명 중 40명(13.9%), 부모-보고에서 전체 286명 중 47명(16.4%)으로 DSM-5에서 보고된 유병율(약 5%)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본 연구는 ADHD 증상에 대한 연구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본 연구 결과를 ADHD 아동에게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임상 현장에서 전문가의 엄격하고 정확한 평가를 통해 ADHD로 진단된 아동을 대상으로 반복 검증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 나타난 민주적 양육방식의 조절효과는 긍정적인 양육방식이 아동의 또래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다수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관되지 않으며,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할만한 경험적 연구 또한 충분치 않다. 따라서 연구 결과를 해석하거나 결과를 실제 상담 장면에서 활용함에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연구에서 본

연구의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위영, 공마리아 (1998).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아의 치료교육 프로그램. 대구: 대구대학교 출판부.
- 강현경, 조형숙 (2008). 유아의 문제행동에 관한 부모-교사 평가 간의 차이 비교. 유아교육학논집, 12(2), 171-193.
- 김경숙 (1993). 유아의 행동문제와 어머니의 양육태도.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세연 (2012).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아동의 증상,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행동 간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10), 330-339.
- 김영환, 홍상환 (1999). 대인관계평가도구의 표준화연구: 대인관계문제검사와 원형척도. 성격논총, 30(3), 537-594.
- 김향지 (1996). 사회적 기술 증재전략이 정인지체아의 사회적 기술, 문제행동 및 학업능력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백혜정, 황혜정 (2006). 초등학생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관련 변인 및 자아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9(3), 1-27.
- 서완석, 장혜경, 김진성, 이종범 (2008). 한국형 단축형 부모용 Swanson, Nolan and Pelham 제4판(SNAP-IV)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신경정신의학, 47(1), 64-72.
- 온싱글, 김은정 (2003).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의 사회적 이해와 행동.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4), 793-813.
- 위지희, 채규만 (2004).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성향과 심리·사회적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3(2), 397-416.
- 이귀숙, 정현희 (2006). 모의 양육태도가 학령 초기 아동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문제행동과 유능감을 매개변인으로.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3(1), 1-17.
- 이동훈 (2011). 교사가 지각한 ADHD 아동의 또래, 교사, 부모관계 특성. 재활심리연구, 18(3), 341-360.
- 이동훈, 김명선, 송연주, 권보민 (2013). ADHD 아동의 또래관계 특성에 대한 탐색적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3), 643- 672.
- 이은주 (2010). 내재화 행동문제와 외현화 행동문제의 종단적 공동발달: 잠재성장모델의 적용. 한국청소년연구, 21(4), 171-200.
- 임연정, 진미경 (2015). 아동이 지각한 부, 모의 양육태도와 또래관계에서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 한국놀이치료학회지: 놀이치료연구, 18(4), 348-367.
- 임혜정, 김혜리, 손정우, 김영랑 (2008). 학령기 ADHD 아동에 대한 사회기술훈련과 부모훈련의 병합치료 효과. 아동교육, 17(1), 225-239.
- 정혜원 (2007). 아동용 교우관계 문제검사의 개발과 타당화. 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탁희중, 이지호, 이장명, 정석훈, 이재원, 심창선, 윤재국, 성추현, 방수영 (2011). 일 도시의 초등학교 학생의 수면습관과 행동, 정서, 주의력, 학습과의 관계. 소아청소년

- 정신의학, 22(3), 182-191.
- 홍상환, 황순택 (2004). 한국아동인성검사 개정판의 아동보고형(KPI-CR-CRF) 개발과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3(2), 483-501.
- 황혜정 (2006).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부모와 교사 평가간의 관계. *한국영유아보육학*, 45, 339-359.
- Achenbach, T. M., McConaughy, S. H., & Howell, C. T. (1987). Child/adolescent behavioral and emotional problems: Implications of cross-informant correlations for situational specificity. *Psychological bulletin*, 101(2), 213-232.
- Aiken, L. S., & West, S. G.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 Albrecht, A. K., Galambos, N. L., & Jansson, S. M. (2007). Adolescents' internalizing and aggressive behaviors and perceptions of parents' psychological control: A panel study examining direction of effec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6(5), 673-684.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 Washington, DC: Author.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5th ed)*. Washington, DC: Author.
- Baker, D. B., & Kevin, M. (1995). Parenting stress in parents of children with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nd parents of children with learning disabilitie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4(1), 57-68.
- Barkley, R. A. (1990). *Attention 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A handbook for diagnosis and treatment*. New York: Guilford Press.
- Baumrind, D. (1971). Current patterns of parental authority. *Development Psychology Monograph*, 4(1), 1-103.
- Baumrind, D. (1989). Rearing competent children. In W. Damon (Ed.), *The Jossey-Bass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 series. Child development today and tomorrow*. (pp. 349-378). San Francisco: Jossey- Bass.
- Baumrind, D. (1991). The influence of parenting style on adolescent competence and substance us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1(1), 56-95.
- Bird, H., Gould, M., & Staghezza, B. (1992). Aggregating data from multiple informants in child psychiatry epidemiological research.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1(1), 78-85.
- Cantwell, D. P. (1996). Attention Deficit Disorder: A review of the past 10 year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5(8), 978-987.
- Cardoos, S. L., & Hinshaw, S. P. (2011). Friendship as protection from peer victimization for girls with and without ADHD.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9(7), 1035-1045.
- Casey, R. J., & Schlosser, S. (1994). Emotional responses to peer praise in children with and without a diagnosed externalizing disorder. *Merrill-Palmer Quarterly*, 40(1), 60-81.
- Erhardt, D., & Hinshaw, S. P. (1994). Initial sociometric impressions of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nd comparison boys: Predictions from social behaviors and from non-behavioral variabl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2(4), 833-842.

- Gresham, F. M., & Elliott, S. N. (1990). *Social skills rating system manual*. Circle Pines, MN: American Guidance Service.
- Guevremont, D. (1990). Social skills and peer relationship training. In Barkley R. (Eds.), *Attention 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A handbook for diagnosis and treatment*. (pp. 540-572). New York: Guilford Press.
- Gupta, V. B. (2007). Comparison of parenting stress in different developmental disabilities. *Journal of Developmental and Physical Disabilities*, 19(4), 417-425.
- Hodgens, J. B., Cole, J., & Boldizar, J. (2000). Peer-based differences among boys with ADHD.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9(3), 443-452.
- Horowitz, L. M., Rosenberg, S. E., Baer, B. A., Ureno, G., & Villasenor, V. S. (1988).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Psychometric properties and clinical applicatio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6), 885-892.
- Hurt, E. A., Hoza, B., & Pelham, W. E., Jr. (2007). Parenting, family loneliness, and peer functioning in boys with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5(4), 543-555.
- Ishak, Z., Low, S. F., & Lau, P. L. (2012). Parenting style as a moderator for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Journal of Science Education and Technology*, 21(4), 487-493.
- Jack, A., Mikami, A. Y., & Dalhoun, C. D. (2010). The moderating role of verbal aggres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feedback and peer status among children with ADHD.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9(7), 1059-1071.
- Jensen, P. S., Rubio-Stipec, M., Canino, G., Bird, H. R., Dulcan, M. K., Schwab-Stone, M. E., & Lahey, B. B. (1999). Parent and child contributions to diagnosis of mental disorder: Are both informants always necessary?.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8(12), 1569-1579.
- Johnston, C., & Mash, E. J. (2001). Families of children with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review and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4(3), 183-207.
- Jones, H. A., Rabinovitch, A. E., & Hubbard, R. R. (2015). ADHD symptoms and academic adjustment to college: The role of parenting style. *Journal of attention disorders*, 19(3), 251-259.
- Kaiser, N. M., McBurnett, K., & Piffner, L. J. (2011). Child ADHD severity and positive and negative parenting as predictors of child social functioning: Evaluation of three theoretical models. *Journal of Attention Disorders*, 15(3), 193-203.
- Lahey, B. B. & Carlson, C. L. (1991). Validity of the diagnostic category of attention deficit disorder without hyperactivity: A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learning Disabilities*, 24(2), 110-120.
- Landau, S., & Moore, L. (1991). Social skill deficits in children with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School Psychology Review*, 20(2), 235-252.
- Martinez, I., & Garcia, J. F. (2008). Internalization

- of values and self-esteem among Brazilian teenagers from authoritative, indulgent, authoritarian, and neglectful homes. *Adolescence*, 43(169), 13-29.
- Merlin, C., Okerson, J. R., & Hess, P. (2013). How parenting style influences children: A review of controlling, guiding, and permitting parenting styles on children's behavior, risk-taking, mental health, and academic achievement. *The William and Mary Educational Review*, 2(1), 32-43.
- Mikami, A. Y., Jack, A., Emeh, C. C. & Stephens, H. F. (2010). Parental influence on children with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I. relationships between parent behaviors and child peer statu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8(6), 721-736.
- Novick, J., Rosenfeld, E., Bloch, D. A., & Dawson, D. (1966). Ascertaining deviant behavior in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30(3), 230-238.
- Robinson, C. C., Mandelco, B., Olsen, S. F., & Hart, C. H. (1995). Authoritative, authoritarian, and permissive parenting practices: Development of a new measure. *Psychological reports*, 77(3), 819-830.
- Shea, B., & Wiener, J. (2003). Social exile: the cycle of peer victimization for boys with ADHD. *Canadi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18(1-2), 55-90.
- Swanson, J. M. (1990). *School-based assessment and inventories for ADD student*. Florida: KC Publishing Inc.
- Swanson, J. M., Kraemer, H. C., Hinshaw, S. P., Arnold, L. E., Conner, C. K., Abikoff, H. B., et al (2001). Clinical relevance of the primary findings of the MTA: Success rates based on severity of ADHD and ODD symptoms at the end of treatment.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40(2), 168-179.
- Webster-Stratton, C. H., Reid, M. J., & Beauchaine, T. (2011). Combining parent and child training for young children with ADHD. *Journal of Clinical Child & Adolescent Psychology*, 40(2), 191-203.
- Wheeler, J., & Carlson, C. L. (1994). The social functioning of children with ADD with hyperactivity and ADD without hyperactivity: A comparison of their peer relations and social deficits. *Journal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2(1), 2-12.
- Wiener, J., & Mak, M. (2009). Peer victimization in children with attention 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Psychology in the Schools*, 46(2), 116-131.

원 고 접 수 일 : 2017. 08. 21
수정원고접수일 : 2017. 09. 27
게 재 결 정 일 : 2017. 10. 19

The Effects of ADHD Symptoms and Parenting Styles on Children's Peer Relation Difficulties and Social Skills

Dong Hun Lee Mo Hyun Yang Soon Jeong Yang Ha Na Yang Eun Jin Kang

Sungkyunkwa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s of both ADHD symptoms (child-reported and parent-reported) and parenting styles on children's peer relation difficulties and social skill. Subjects were comprised of 5th and 6th grade students and parents located in A city. 286 surveys were analyzed; results are as follows: child-reported and parent-reported ADHD symptoms and parenting styles correlate with peer relation problems and social skills. When ADHD symptoms were high, higher authoritative parenting styles were associated with higher the peer relation problems. With regards to social skills, the effect of child-reported hyperactive and authoritative parenting style was significant in the responsibility dimension exclusively. Parent-reported ADHD symptoms and parenting styles moderated social skills. When ADHD symptoms were high, higher authoritative parenting styles were associated with lower social skills. Limitations and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Key words : child-reported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 symptoms, parent-reported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 symptoms, parenting styles, peer relation problem, social skills